

배포 일시	2022. 8. 9.(화) 23시 00분		
담당 부서 < 총괄 >	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	책임자	기획관 조창현 (044-201-3311)
		담당자	사무관 황영용 (044-201-4570)
			주무관 유진욱 (044-201-4569)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 김현진 (044-201-3927)
		담당자	사무관 이상영 (044-201-3932)
	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정채교 (044-201-4606)
		담당자	사무관 송재영 (044-201-4617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원희룡 장관, 24시간 긴급 보고·대응체계 운영

- 국토부-소속·산하기관을 통해 전국 단위 긴급 대응·지원체계 가동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천역·광명역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점검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소집하여 실시간 피해·복구 상황과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.
- 23시 현재, 도로는 신속한 복구작업을 통해 국도3호선 연천군 일대와 광주-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14.4km 구간은 전면 통행 재개가 이루어졌으며,
 - 용인-서울선 서판교IC 인근, 국도43호선 화성시 일대, 국도31호선 인제 합강리 일원은 조속히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다.
- 철도는 일산선 화정역 선로 침수 피해가 추가 발생(8.9, 17:26경) 하였으나, 신속한 실시간 대응을 통해 1시간 14분 만에 정상운행을 재개하여, 현재 운행 장애 구간은 없는 것*으로 파악되었다.

* 호우 초기 7개 구간에서 침수·토사유입으로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조속히 운행 재개

- 항공은 현재 피해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호우 상황 발생 이후 즉시 구성한 긴급주거 지원반*을 통해, 수해지역 이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도권 내 '긴급지원주택' 물량을 확보 중이다.
* 국토교통부-LH 합동 TF로,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제공하기 위한 TF
- 원희룡 장관은 “밤사이 강우가 지속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, 본부 및 소속·산하기관에서는 전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, 유사시 시간을 불문하고 즉시 보고 및 응급 대응체계를 구동하기를 바란다.”고 당부했다.